

전남 중부권

장흥 해당산단 분양 활기

전남개발공사, 식품·신재생에너지 기업 잇단 투자 유치

장흥 해당산단단지에서 식품기업과 신재생에너지기업의 투자유치가 결정됐거나 잇따르면서 산단 활성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26일 국내 최대 오리육 가공업체인 ㈜코리아더카드의 관계사인 ㈜다슬과 65억5000만원 규모(5만6220㎡)의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은 장흥 해당산단에 총 400여억 원을 투입, 국내 최첨단 HACCP공장시설을 갖추고 신선육 가공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오는 10월에도 4만8095㎡(56억원)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장흥 해당산단 분양면적(88필지 213만㎡) 중 96만

㎡가 팔려 분양률도 45%로 상승했다.

이번만 아니라 경기도 소재 K사(3만3000㎡, 38억원 규모)와 국내 그린에너지 부문 선두주자인 인천 소재 A사도 장흥산단의 산업시설용지 매입을 계획중이어서 산단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장흥군과 지역 특성 및 기업 사정을 감안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 결과”라며 “이달 안으로 투자 의사를 보인 2개사와 일단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장흥을 해당리 일원 292만㎡에 1465억원을 들여 농수특산물 가공공장과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산업 분야 우수기업 등이 들어서는 해당산단을 조성중이다.

/김지승기자 dok2000@kwangju.co.kr



‘신비의 과일’ 영암 무화과 영암군 삼호읍의 한 농장에서 무화과 재배농민이 탐스럽게 익은 무화과를 따고 있다. 영암지역은 전국 무화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역사의 고장’ 화순서 여름나세요

유네스코 고인돌 유적지에 선사인 삶의 체험장

인공·천연림 어우러진 ‘피톤치드 산림욕도 인기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청정고을 화순에서 알찬 여름 휴가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화순군이 관내 문화 유적지와 관광지 주변을 정비하며 휴양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피톤치드’ 산림욕 = 대표적인 휴양시설로는 백야산과 한천 자연휴양림을 꼽을 수 있다. 백야산 자연휴양림은 무등산은 물론 멀리 지리산 천왕봉까지 보일 정도로 시야가 트였다. 또 휴양림 15분 거리에 금호온천리조트가 있고 가족단위 휴양도보와 사계절 썰매장을 갖춘 백야산 관광목장이 인근에 있어 광주의 휴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편의시설로는 숲속의 집, 산림욕장, 물놀이장, 아영장 등을 갖췄다. 한편 자연휴양림 역시 숲이 울창하고 쾌적하게 정비된 계곡과 주변경관이 아름다워 가족단위 휴양지로 손꼽힌다. 인공림과 천연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안양산 휴양림과 모후산 숲길 역시 등산객과 연인들의 나들이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문화유적·사찰 = 화순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596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고인돌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데다 선사인(先史人)의 다양한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도 운영되고 있어 어른들은 물론 중·초·고 학생들에게 유익하다. 또 1519년 기묘사화로 인해 능성(능주)에 귀향을 왔던 정암 조광조 유배지와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적려유허비가 있으며, 세계 최대규모의 것으로 확인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 우리나라 초대 서양화단의 개척자로 인상과 작품을 많이 남긴 오지호 화백의 기념관, 천불천탑의 신비를 자랑하는 운주사, 국보 제57호 절감산사탑이 소재한 쌍봉사, 유마사 등이 있다.
이밖에도 시설규모가 1만5460평으로 1일 1만명 이용이 가능한 화순온천과 무등산 컨트리클럽, 클럽 900, 남광주클럽, 조아밸리 골프장과 겸한 도곡온천은 스포츠 관광과 연계한 좋은 코스이기도 하다.
/중부취재본부 = 정운수기자 unsu@

장흥 계약심사제로 올 22억원 예산절감

장흥군이 계약체결 전에 공공사업의 철저한 원가분석과 설계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시행, 올 상반기에 2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26일 장흥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공사·용역·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사업비 449억 7000만원의 4.8%에 해당되는 21억 5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군은 상반기동안 5억원 이하의 사업장 자체 계약심사 28건(2억8900만원)과 전년도 계약심사를 의뢰한 5억원 이상 22건(18억6400만원) 등 총

50건에서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다. 계약심사의 주요 내용은 ▲공사 2억원 ▲용역 7000만원 ▲물품구매 2000만원 등 모든 사업에 대해 원가 계산의 과다 계상분을 조정하고, 주요 공정의 누락이나 오류로 부실한 설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보완해 줌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관내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각종 자재와 물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해 6억원의 구매를 유도했다.
/중부취재본부 = 김승기기자 kykim@

강진 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자매결연 미국 워싱턴주 교향 학생들 3년째 방문

강진군과 자매결연을 한 미국 워싱턴주 스노콰미(snoqualmie)시 교향학생들이 3년째 강진을 찾아 왔다. 강진군은 크리스티나 맥컬럼 미국 워싱턴주 스노콰미시 자매결연위원회 부위원장과 마운티사이 고등학교 6명 학생을 위해 지난 22일 강진고 다목적 강당에서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날 환영식은 김은식 강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김용식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호스트 6가정, 강진고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상호 답례인사와 함께 기

념품 전달, 밴드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김용식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 장점을 배워 나가고, 서로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교향학생 6명은 강진의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6가정과 1대1 결연을 맺고,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홈스테이를 하면서 지역문화, 음식, 생활 등을 체험하게 된다.
/중부취재본부 = 남철희기자 chou@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 김옥애씨

청자축제 선상 체험장서 팬사인회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 김옥애(66·사진)씨가 31일 강진 마령 청자보물선 선상체험장에서 팬사인회를 연다. 강진 청자축제 행사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날 사인회에서 김씨는 최근 출간한 장편 창작동화 ‘그래도 난 보물이야’(도서출판 청개구리 펴냄)를 독자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우리 문화유물의 소중함과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를 담은 ‘그래도 난 보물이야’는 작가가 ‘운누리 호’에 승선해 다녀온 옛 청자 운송배달 체험을 바탕으로 강진 청자를 소재로 쓴 동화다.

강진 출생인 김씨는 광주 교육대학교 후남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지내다 1999년 명예퇴직 후 현재는 광주에서 동화 창작에 전념하고 있다. 광주예술문화특별공로상, 한국 아동문학작가상, 광주일보문화상 등을 수상했다.선착순 120명에게는 책을 무료로 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 북

별헤는 밤...우주의 신비속으로

부안군 천문관측시설 갖춘 청소년수련관 각광

“무더운 여름밤 달과 별을 보고 꿈을 키우세요.” 여름밤 산골학교에서 더위를 식히며 달과 별을 보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다. 부안군은 지난 4월부터 상서면 옛 청림초등학교 부지 8000㎡에 건축면적 742㎡의 규모로 천문 관측시설과 숙박시설, 운동시설 등을 갖춘 청소년 수련시설이 운영돼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설에는 청소년 심산단련과 함께 천체망원경과 국내 최대 규모의 1000mm 반사망원경, 8m 완전 개방형, 150mm 최고급 대구경 쌍안경, 보조 망원경 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천문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천문학을 재미있게 배우고 달, 별자리, 성운 등도 직접 볼 수 있다. 또 숙박시설과 공동 취사시설, 풋살장, 족구장 등의 운동시설과 무대시설, 편의시설까지 갖춰 학생과 천문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인근에 청자박물관과 누에타운, 원송이학교가 있어 문화, 자연, 과학을 함께 즐길 수 있고 수려한 변산반도 자연경관도 볼 수 있다. 문의(063-580-3896)
/연합뉴스



“참고가 달라 졌어요” (사)전국 재해구호협회 봉사단이 소방방재청 후원으로 최근 순창군 쌍치면 운암마을을 찾이 참고 벽 등에 벽화를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순창군 45억투입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상 2층규모 내년 5월 완공

순창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본격화된다.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진흥기금 33억, 군비 12억 등 총 45억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센터에는 다목적체육관, 요가실, 세미나실, 체력상당·체력측정실과 휴게공간 등이 조성되며 내년 5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순창군은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지난 5월 신축공사 건축부분과 전기부분을 발주했다. 또 조달청에 기술심사와 원가검토를 포함한 계약을 의뢰했으며, 지난 14일 건축공사 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체육진흥사업소 박동규 체육지원 담당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 등 여가선용 공간 제공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 = 이동희기자 dhlee@

“군산 미장지구 택지개발 담합”

심사 통과 13개 업체 중 2개 업체만 입찰 참여

경실련 “사전 담합 가능성”... 공정위에 조사의뢰

군산 경제실천시민연합은 26일 “군산 미장지구 택지개발 낙찰과정에 담합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최근 조달청 입찰에서 ㈜현대건설은 미장지구 택지개발 예정가격의 93.2%인 765억7000만 원으로 최저가 응찰로 99%인 811억 9900만 원을 제시한 신희아건설(주)을 제치고 시행사로 낙찰됐다. 군산 경실련은 “예정가에 근접한 낙찰은 입찰 정서상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히 입찰자격 적격심사를 통과한 13개 업체 중 11개는 처음부터 응찰하지 않고 현대와 신희아건설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것은 정황상 사전에 담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입찰과 낙찰 결과는 대기업에 특혜를 줘버린 꼴이 됐으며 군산시 예산 수백억이 지출돼야 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군산시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여론만 살피는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며 “낙찰 시행사와 계약에 대해 즉각 계약금지급처분신청을 통해 시민의 세금 지키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군산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절한 조치 없이 공사가 시작되면 법적으로 대응하고 미장지구 택지개발 낙찰 취소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여론만 살피는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며 “낙찰 시행사와 계약에 대해 즉각 계약금지급처분신청을 통해 시민의 세금 지키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군산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절한 조치 없이 공사가 시작되면 법적으로 대응하고 미장지구 택지개발 낙찰 취소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뉴스 브리핑

국립민속국악원 31일~내달 1일 여름 국악무대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는 31~8월 1일 지리산 달궁야영장에서 ‘지리산 여름국악무대’를 개최한다. 첫날인 31일에는 길놀이와 소고로 공연에 이어 판소리 5바탕의 눈대목을 창극으로 만나보는 신관람을 벌인다. 둘째 날인 8월1일에는 대중과 함께

함께 숨 쉬고 민중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한 민속 음악이 펼쳐진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지난 1993년부터 지리산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름 국악무대’를 기획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북취재본부 = 백성기자 bs8787@

원자력연구 골·방사선 점막 레이저치료 패치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하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는 최근 골의 항염 특성과 방사선 기술을 접목해 레이저를 빠른 시간에 치료하는 패치를 개발했다.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노영창 박사팀은 골을 수용성 고분자와 섞어 얇은 시트(sheet)를 만든 후 감마방사선을 쬐어 골의 세균

억제력과 항염특성을 환부에서 계속 작용하게 하는 ‘피부 레이저 치료용 하이드로겔’을 만들었다. 연구진은 ‘하이드로겔’을 당뇨성 레이저가 있는 쥐에 적용한 결과 치료 10일 후 90% 이상의 피부와 세포의 재생 효과를 보이며 항생제 부작용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 = 박기섭기자 parkks@

김제시 교통신호 연동화 시내 전역 확대

김제시는 지방도 716호선(김제~이서간)을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8월 말까지 시내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번 교통신호 연동화사업이 완료되면 신호대기로 인한 연료·시간 낭비와 공회전에 따른 대기오염을 저감시켜 도로의 막힘없

는 교통 소통과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사업에서 우선 추진 완료된 지방도 716호선 도로 이용자의 불편이 대폭 감소되고 교통사고 예방의 부가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취재본부 = 홍운성기자 hnews@

전주박물관 9월 18일까지 역사문화 전시

전북의 역사문화 ‘임실 특별전’이 오는 9월 18일까지 국립 전주 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에는 ▲산과 물이 어우러진 명당(明堂) ▲임실의 발자취 ▲불심(佛心) 가득한 땅 ▲춘신·효자·열녀 ▲흥이 많은

사람 등 5부로 나누어 전시된다. 구석기~조선시대까지의 유적인 하가 구석기유적, 운암 신석기유적, 청동유적, 고려사, 서원문서, 금성리 고분, 성미 산성 인장 등 295점이 전시됐다.
/전북취재본부 = 이동희기자 dhlee@

